

어떤 주제의 책인가?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강촌공원작은도서관	김희정	이파라파 나무나무	사계절	이지은	한 마시멜로가 용기를 내어서 괴물과 친구가 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심은경	햇빛속 대나무숲의 모든	우리학교	황지영	소문이란 건 어쩌면 온라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다. 소문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덩치를 키워 나갔다. 서로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는 소문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점점 더 커져 가는 의심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다. 남모름 아픔과 결핍을 가진 인물들이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찾아 가며, 성장하는 모습이 훌륭한 감동을 선사한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예다중작은도서관	고혜성	시간 고양이	이지복	박미연	5권이 가장 재미있어요. 선생님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와이시티작은도서관	김경진	동북이 할멈 시리즈	슈크림북	강효미	우리 도서관 2024년도 대출 1위 도서랍니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대조경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불량한 자전거 여행	창비	김남중	(어린이 추천) 난 행복만 가정에서 살고 있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호진이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 것이 신기하고 흥미있게 보였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독도 바닷속으로 와볼래?	봄별	명정구, 안미란	가기 힘들고 보기도 힘든 그래서 더 궁금한 독도 바닷속에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그림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 주는 책이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김민찬	아무거나 문방구	창비	정은정	도깨비랑 이야기 한판을 벌이는데 재미있어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이다인	최강 배프 만들기	한림	신은영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충청지부	기마을10단지 무문작은도	윤나영	흔한남매	미래엔아이세움	백난도	남매의 생활속 이야기가 사실감 있게 묘사되고 있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책입니다. 마법천지문의 아성을 무너뜨렸네요 ㅎㅎ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개인회원	개인회원	김진희	우리는 운동을 너무 진지해	생터사	박정은	(책 속 한 줄)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두 운동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대구지부	해복작은도서관	이수미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한강	제목에서 뜻하는 것은 자연의 무한반복 인생의 무한 반복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개인마다 느끼는 인생의 참혹한 고통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꾸고자 인구의 상수를 한단계 올라서고자 스스로 제물이 되는 역할을 한다. 세 여인 경하, 인선, 인선 모친을 통해서 현대사를 관통하는 제주 4.3 이야기가 바탕이 된다. 시작 한마디 : 성근 눈에 내리고 있었다. 인선이 묵공소 운영을 하다가 손가락 두 마디가 잘려 봉합 수술을 하여 24시간 동안 간병인이 곁에서 3분에 한 번. 봉합된 자리를 3주동안 주사기로 찌르는 일을 한다. 왜? 40 쪽~ 봉합 부위에 딱지가 앉으면 안 된다. 계속 피가 흐르고 내가 통증을 느껴야 한다. 안 그러면 질린 신경 위축이 죽어버린다고 했어. "" ""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 뭘 , 책은 거지 수술한 위쪽 마디가." 밑줄 : ~ 종락 316 쪽 밑을 수 없는 건 날마다 햇빛이 돌아온다는 것였어. ~종락 317 쪽 내 인생이 원래 무엇이었는데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어. ~ 종락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명이 살해된 것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이 섬에 사는 30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종락. 끝줄 한마디: 나와 하기로 한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슈퍼라움작은도서관	신정숙	나의 그리스 로마 탐구생	부크크	신정숙	고전을 원서로 읽을 줄 알게 하여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작가나 지식 생산자가 만든 것을 일반 독자 또는 지식소매상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지식도매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온 책인데, 효과적인 그리스 로마 문화와 역사 이해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입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동부지부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지영	각각의 계절	문학동네	권여선	과거가 현재-미래로 이어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일깨워준 책. 우리는 매순간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 지금의 이 순간이 소중한 이유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서부지부	술속SH작은도서관	조슬기	어떤 어른	사계절	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고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어린이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어른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요, 그 시선이 관통하는 진정한 어른 이야기를 기대하며 책을 펼칩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서부지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우미선	나의 아기오리에게	상상의 힘	코베아마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야, 지금은 너의 시간이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고 있다. 여전히 작은도서관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긴 20년을 버티오면서 어느 한 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았던 적은 없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작은도서관 사서가 꿈인 지혜가 자곡차곡 크고 있고, 매년 잊지 않고 보내주는 글 한 장의 달콤함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4살 때 온 처음 도서관에 와서 20살 훌쩍 넣은 청년이 되어 젊은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 민정아와 이제 막 청소년이 되는 유나, 수연, 도영, 주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책은 단순하다. 장난기가득한 아기 오리 표정이 웃음이 지어지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짧은 글에 순간 울컥해진다. 엄마에게 이 책을 선물 받고 평평 울었다는 사회 초년생 두희처럼 당백한 위로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책이다. 위료가 필요한 시대 모든 아에게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 기억해, 네가 아주 많은 것을 지냈다. 걸, 네겐 나누어 가질 재능이 있다는 걸, 네 삶은 내가 꿈꾸던 그 모습이 될거야, 그리고 꿈꾸던 모습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서울서부지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임희정	장강보다 따뜻한네	북극곰	이모토 요코	추운 겨울, 한 걸레의 장강만 있는 어린이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시린 손을 녹인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온기는 사랑이 되어 모두를 따뜻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림책.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인천지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유영란	봄은 또 오고	봄별	아드리앵 파블랑주	우리 인생에서 여러 봄을 맞이하고 무심히 보면 여러봄이 다시 왔을때 이제 깨닫게 되는 소중한 봄날의 이야기 찡찡한 나의 봄날은 어떨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